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창세기 41:38

박범서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 정,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우상숭배하며 정신과 육신의 문제와 내세와 후대의 문제 가운데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문제와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땅 끝까지 237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 강단메시지의 제자로 응답받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릴 RUTC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주어진 여건, 나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바뀌는 것이다. 세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램턴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되건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지시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로 불러주셨다.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237과 통하게 된다. 요셉이 아버지 아담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이게 보좌와 통하니 하나님은 237과 통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절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애굽과 그 당시 열방이 따라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회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천사를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지켜주셨다.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 237나라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가나안 7족속 31왕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셨다.

(2) 그리고 나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네피림과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충만을 강조한 것이다. 시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11절에 ‘내게 갑철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3) 또 나는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자이다. 237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아들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빛을 누릴 때, 237 현장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줄 믿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자,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자’라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감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겠다고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다가 내 마음에 담겨지면 내게 담겨진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정체성이 있다.

1. 하나님은 나를 세상 서밋들의 영적리더로 세우실 것이다. 수많은 서밋들이 있지만 답이 없다.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영적 리더로 나를 세우실 줄을 믿

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일이다. 영적동신망을 갖춘 영적리더가 되면 세상 서밋을 이끄는 영적리더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 지금부터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소유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237복음화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237 나라, 천하 만민을 말한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소원이 처음부터 237에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도 237복음화인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족, 가정이 있고, 내 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237복음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되어지는 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237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다.

(2)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삶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 불일치의 결과이다.

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셨는데 내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일으켜 사용하셨다. 강대국으로부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

② 그런데 이 강대국의 배경에는 3단계가 있다. 3단계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실제 강대국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다. 이 3단계는 명칭만 있었을 뿐이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네피림운동과 바벨탑운동으로 조직을 갖추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3단계가 네피림 전략으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리는 뜻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하는 일이 네피림운동, 결국 집신하게 하고 이 사탄을 체험하게 하여 사탄서밋을 만들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③ 그런데 지금 3단계가 명상이라는 것을 종교와 문화에 접목해서 엘리트와 후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을 ‘집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 호흡, 마음 다스림, 이런 것으로 표현하여 후대와 엘리트들 장악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앙의 현장,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nobody와 nothing의 현장, 문제, 위기, 재앙 만난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을 회복하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램턴트이고, 그 램턴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램턴트운동이다. 그 주역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4) 하나님의 방법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영적시스템이다. 이 영적시스템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리더가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불신자라도 세상을 움직인 사람은 다 이 영적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① Untact :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놀람게도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전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고 기도로 움직였다. 요셉이 직접 사람 만나지 않고 언택으로 세계복음화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과 언택으로 영으로 소통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택으로 만나는 것이다.

② Contents : 컨텐츠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임한 말씀이 세상을 살릴 내용, 즉, 컨텐츠이다.

③ Media : 미디어는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미디어를 통해 언택으로 전달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다. 요즘은 ‘1인 방송시대’라고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로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미디어는 바로 ‘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히게 된다. 이 인생미션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

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미션을 붙잡고 응답받은 내 인생 자체가 미더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살리게 하신다. 그것이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리더의 내용인 것이다.

2. 하나님은 나와 후대들을 세상 서밋을 치유할 영적의사로 세우실 것이다. 어떻게 실제 서밋들을 치유하는 영적의사로 응답받을 수 있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1) 인간의 치유는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보이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것이다.

(2) 영적치유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살리지 못할 때, 치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된다. 사탄이 주는 12가지 저주 가운데 나, 육신, 성공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의 고민이 전부 나, 육신, 성공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온다.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는데 결국 마귀자녀로 우상숭배하다가 정신과 육신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지옥 가고 후대까지 그 저주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네퍼팀에 의해 3차 산업을 다 빼앗겼고 4차 산업도 빼앗길 것이다.

(3) 이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을 통해 보좌를 움직이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탄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4) 치유의 방법이다.

①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하여야 하는가?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해야 한다. 성경적 치유로 나를 살려라. 우리는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사건에 속기 쉽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건을 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바울아 두려워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라. 가장 좋은 것이 예배이다. 예배에 집중할 때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라. 내가 24시 불신앙에 잠혀있다가도 그 10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초월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②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대도 치유하시고 미래도 치유하신다. 혼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with이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Immanuel이다.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Oneness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With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Immanuel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Oneness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내가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함께함을 누린 것이 with작품인 것이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것이 Immanuel작품인 것이다. 내가 죽음의 위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것이 Oneness 작품인 것이다.

3.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를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대사로 세우실 것이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삼중적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3저주를 꺾는 영적대사가 되어야 한다.

(1)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37가지 권세를 주셨다. 먼저 왕적 권세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셨다. 사탄을 꺾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또, 제사장적 권세가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분의 희생제사, 피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가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그 분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2) 권세를 놓친 결과로 지금 시대는 탈서밋, 탈국가, 탈경제로 가고 있다. 대통령 있어도 대통령 말 안 듣고, 국가가 있어도 국가 말 안 듣고, 경제시스템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때 교회가 영적 권세에 무지하니 교회위기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오직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소멸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위기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시대가 온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도 경제로 전쟁을 하고, 영적전쟁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특별히 명상을 통해 네퍼팀 전략, 사탄체함을 사기고 있다.

(3) 이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3중적의 영적대사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그 순간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축복이 나에게, 제사장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 흑암 꺾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그 권세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있다. 그 제사장적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신 이유를 알고 영적서밋에 도전하기 바란다. 내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영적서밋,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인도하고 축복해 가신다. 어떻게 영적서밋에 도전하는가? 지금부터 7대 여정을 누리면 된다. 가장 먼저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 바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줄 믿음을 바란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우리 신앙에 자립하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되고, 10가지 발판을 통해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5가지 확신이 생기면서 9가지 흐름을 바꾸게 되고, 미래를 말씀으로 미리 보게 되어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치유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

1. 먼저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하겠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말씀이 편집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시스템을 붙잡아질 만큼 편집되어야 한다. 다윗에게 언약계 모실 성전이라는 말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 속에서 다윗 모든 인생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 인생 전체가 성전건축이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될 만큼, 24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다. 말씀이 편집되면 Nobody, Nothing에서 Everybody, Everything의 응답이 와서 한 명 때문에 다 살게 된다.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성공하면 된다.

2. 시공간 초월을 누리라. 예배로,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CVDIP에서 C는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V는 비전인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다. D는 꿈인데 내게 편집되어진 말씀이 꿈이다. 그 속에서 강단을 따라 기도로 계속해서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I, image에 관한 이야기다.

3. 세 번째로 237 현장의 빛을 누려야 된다. 237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다.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생각하며 디자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전도를 생각하며 3오늘, 다락방, 예배를 지속하면 반드시 종합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올인(All-In)하고, 전도운동으로 올라옴(All-Out)하면 하나님은 올체인지(All-Change)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영적 리더, 영적 의사, 영적 대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기를 바란다.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예배성공, 하루 10분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내게 주신 정체성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밋들의 영적 리더로, 서밋들의 영적 의사로, 서밋될 영적 대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nobody의 현장, 아무 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body의 현장,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everything의 현장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